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⑤	①	③	⑤	③
6	7	8	9	10
②	④	⑤	②	④
11	12	13	14	15
①	①	⑤	①	⑤
16	17	18	19	20
④	①	⑤	④	⑤
21	22	23	24	25
⑤	③	④	②	②
26	27	28	29	30
①	⑤	②	③	③
31	32	33	34	35
④	②	③	③	④
36	37	38	39	40
①	②	②	②	①
41	42	43	44	45
①	④	②	①	①
46	47	48	49	50
③	⑤	①	④	③

<1번 오답 해설>

② 명도전,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가 유통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명도전은 중국 전국 시대에 사용된 화폐이다(연나라, 제나라). 손칼 모양의 청동 화폐로 '명(明)'자가 장식되어 있어 '명도전(明刀錢)'이라 부른다. 그리고 반량전은 중국 진(秦)나라 때 사용된 화폐(동화(銅貨))이다. '반량(半兩)'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③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이용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이다('비파형 동검'이라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

0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다.
- ②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③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이용하였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화면 속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 토기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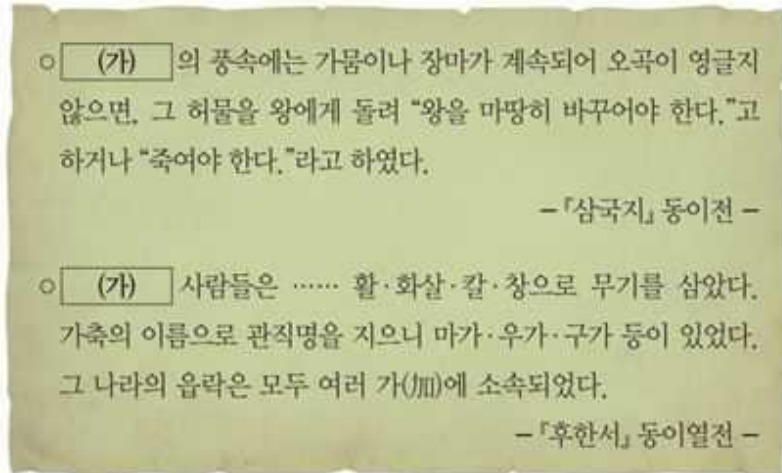
오답 해설>

①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한 것은 삼국 시대의 일이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어 가능해진 것인데, 특히 6세기에 이르러 쟁기, 호미, 팽이 등 철제 농기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우경이 확대되었다. 참고로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또 고려 시대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우경(牛耕):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는 일. 우경이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증왕 3년인 502년의 일이다(즉 사료상의 우경 시작 기록,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우경이 실시된 것으로 짐작,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 『삼국사기』). 아울러 이때 수리 사업도 장려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02 - 초기 국가, 부여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 ③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 ④ 음악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정답> ①

위의 자료에 '(가)의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가) 사람들은 …… 활·화살·칼·창으로 무기를 삼았다.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으니 마가·우가·구가 등이 있었다. 그 나라의 음악은 모두 여러 가(加)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초기 국가, 부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매년 12월에 열었다.

오답 해설>

- ②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이다(기원전 108).
- ③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 요컨대 재상 선출과 관련 사안을 결정한 나라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 ④ 음악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責禍)*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 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가 존재한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책화: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음악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음악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責禍)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도: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03 - 고구려

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어요.
- ② 골품에 따른 신분 차별이 엄격하였어요.
- ③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어요.
- ④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 8조가 있었어요.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어요.

정답> ③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안악 3호분 벽화 중 일부로, 무덤 주인공과 호위 군사 등의 행렬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벽화를 남긴 나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화창에는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을 설치하였어요'와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어요'라는 답변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라'는 고구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안악 3호분은 황해도 안악에 있는 4세기 고구려의 무덤이다(굴식 돌방무덤). 생활 풍속과 관련된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일명 동수묘(冬壽墓)로 불린다. 벽면에 적힌 묵서 명문을 통해 357년(고국원왕 27)에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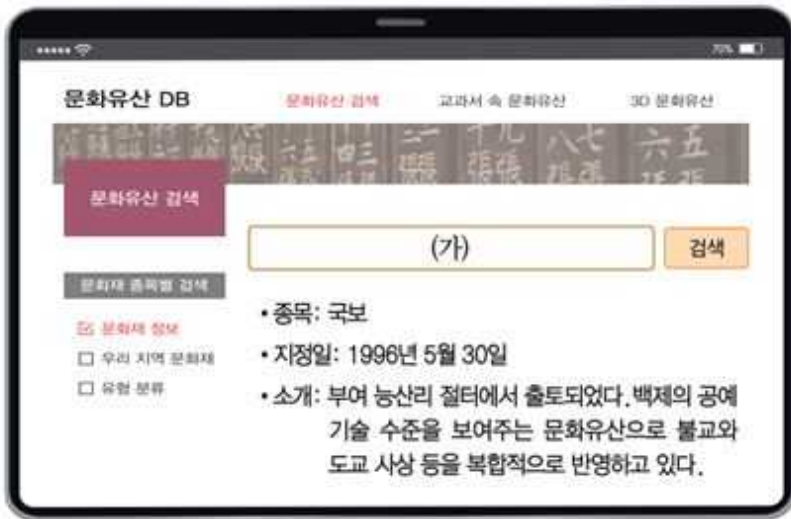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한 나라는 고구려이다(194, 고국천왕 16).

오답 해설>

- ①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은 나라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영토(고조선 서방 2천여 리)를 빼앗긴 적이 있다.
- ② 골품에 따른 신분 차별이 엄격한 나라는 신라이다. 골품 제도는 신라의 독특한 폐쇄적 신분 제도이다(법흥왕 때 골품제 정비).
- ④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가 있었던 나라는 고조선이다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국가는 백제이다(부여씨→고구려 동명왕 계통). 왕비족으로 진씨와 해씨가 있었고, 귀족으로 사씨(사택씨), 연씨, 국씨, 목씨, 백씨, 협씨가 있었다.

04 - 백제 금동 대향로

4.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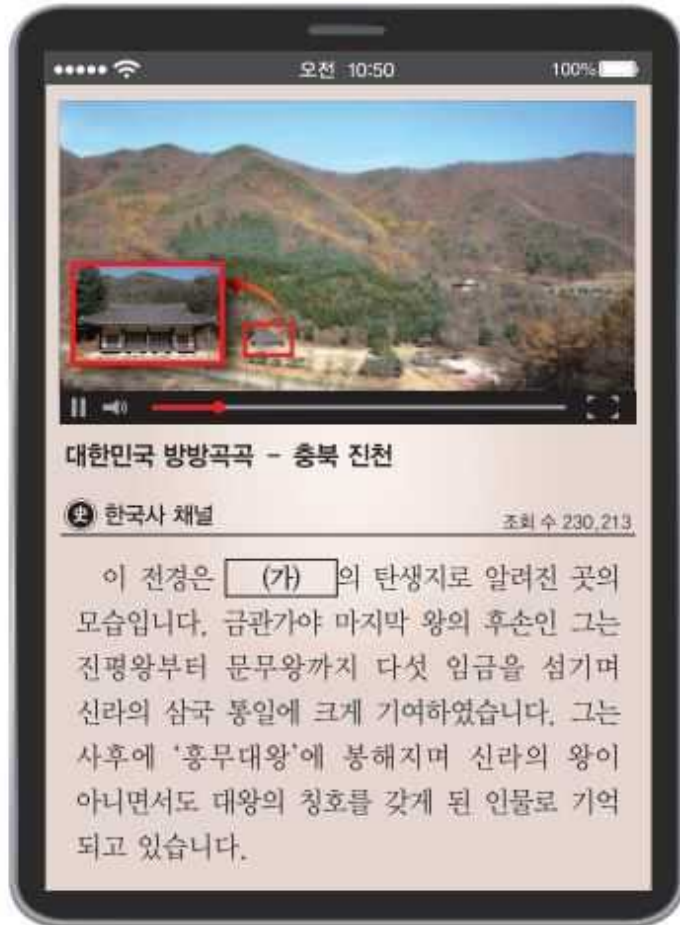


정답> ⑤
 '1996년 5월 30일'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백제의 공예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불교와 도교 사상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백제 금동 대향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 꼭대기에는 봉황이 부착되어 있고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다.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백제 왕실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발해의 이불병좌상으로, 발해의 동경 용원부 유지에서 발견되었다. 현재는 일본의 동경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이다(539, 고구려 안원왕 9). 국보 제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연가(延嘉)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③ 고려 지산동 고분군(32호 무덤)에서 출토된 대가야의 금동관이다. 표면에 도금이 되어 있고 띠모양 관테에 세움 장식이 하나만 부착되어 있다. 윗부분에 연꽃봉오리(또는 보주형)로 장식한 광배(光背) 모양의 금동판 좌우에 꺾인 가지 모양의 작은 세움 장식을 못으로 고정된 형태로, 작은 세움 장식의 끝부분도 작은 연꽃봉오리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움 장식과 관테의 가장자리는 연속점 무늬와 물결 무늬로 표현하고 사이사이에 대롱모양의 무늬를 찍었다. 세움 장식의 중앙은 연속점 무늬와 물결 무늬 등으로 X자를 그리고 다시 수평선을 그어 X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처럼 각 선의 교차를 통해 황금 분할의 비(比)를 이루어 단조로움을 깨고 선과 면의 대칭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④ 기마 인물형 토기(주인상)으로 신라의 토기이다(5~6세기)(국보 제91호).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되었으며 종자상도 있다(1쌍). 컵 모양의 수구(受口)가 있는 동물형 토기로, 의식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그릇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의 복식과 마구류 연구에 도움을 준다.

05 - 김유신

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 ②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 ③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④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⑤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정답> ③
 '대한민국 방방곡곡-충북 진천'이라는 제목 아래 '이 전경은 (가)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의 모습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인 그는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다섯 임금을 섬기며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사후에 흥무대왕에 봉해지며 신라의 왕이 아니면서도 대왕의 칭호를 갖게 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신라의 김유신(595~67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김유신은 선덕 여왕 16년인 647년 정월에 일어난 (상대등)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한 바 있다.

오답 해설>
 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황해도 한성(지금의 재령)에서]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검모장(?~670)이다(670, 신라 문무왕 20). 검모장은 당의 정벌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안승에게 피살되었다
 ② 당의 등주를 선제공격한 인물은 발해의 장수인 장문휴(?~?)이다(732, 발해 무왕 14).
 ④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한 인물은 사찬 시득(?~?)이다(676.11, 신라 문무왕 16)[기벌포 전투(해전)]. 당시 당의 해군을 이끈 인물은 설인귀(613~683)였다.
 ⑤ 일리천에서 (후백제) 신검(재위 935-936, 제2대)의 군대를 물리친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877~943)이다(936.9)(일리천 전투). 일리천은 지금의 경북 구미 지역이다.

06 - 백제 성왕

6.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 ③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 ④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 ⑤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정답> ②

맨왼쪽 말풍선에 '무령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이 왕은 국호를 고치고 중앙 관청을 22부로 정비하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신라에 다시 빼앗겼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결국 신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왕'은 백제의 제26대 왕인 성왕(재위 523-554)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성왕이 수도를 웅진(충남 공주)에서 사비(충남 부여)로 옮기면서 국호도 남부여로 바꾼 것은 재위 16년인 538년의 일이다(사비 시대 개막). 그리고 재위 29년인 551년에는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한 바 있다(551, 성왕 29).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554년(성왕 32)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금마저(지금의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왕은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재위 600-641)이다(639, 무왕 40).
- ③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킨 왕은 백제의 제31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의자왕(재위 641-660)이다(642, 의자왕 2).
- ④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한 왕은 고구려의 제13대 왕인 근초고왕(재위 346-375)이다(375, 근초고왕 30).
- ⑤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왕은 백제의 제21대 왕인 개로왕(재위 455-475)이다(472, 개로왕 18).

07 - 나당 동맹 성사

7.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②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③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④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 ⑤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정답> ④

왼쪽 그림의 말풍선에 '며칠 전 우리 고구려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는 물음에 '요동성, 백암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안시성에서 끝내 물리쳤다네'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안시성 전투가 발생한 것은 고구려 보장왕 4년인 645년의 일이다. 오른쪽 그림의 말풍선에는 '고구려 집권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 연남건이 자신의 형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하네'라는 말에 '결국 연남생은 고구려의 여러 성을 당에 바치며 투항했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연개소문의 사후 세 아들(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사이에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내분이 발생하여 장남인 대막리지 연남생(634~679)이 당에 투항한 것은 보장왕 24년인 665년의 일이다.

신라의 김춘추(603~661)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진덕 여왕 2년인 648년의 일이다(나당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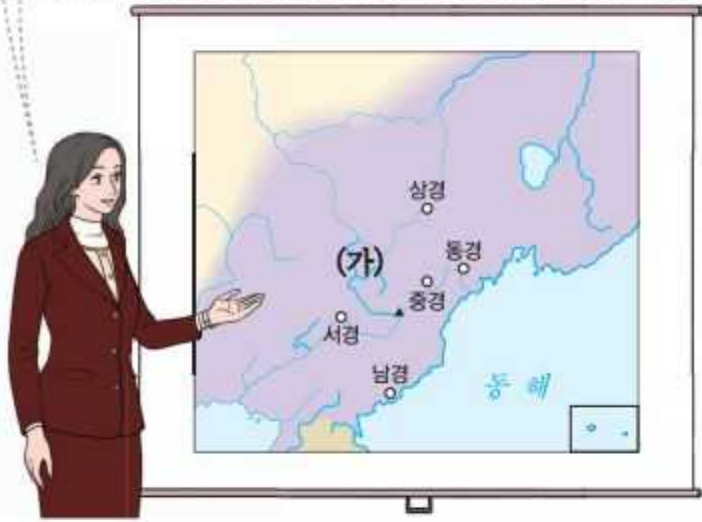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한 것은 재위 3년인 373년의 일이다.
- ②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재위 23년인 562년의 일이다.
- ③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에게 대승을 거둔 것은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살수 대첩).
- ⑤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은 재위 26년인 371년의 일이다.

08 - 발해의 경제 상황

8.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지도는 (가)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각지에서 말이 사육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솔빈부의 말은 당에 수출될 정도로 유명하였습니다. 특히,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 반도 지역을 장악하였던 이정기 세력에게 많은 말을 수출하였습니다.



- ① 벽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하였다.
- ② 구황 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하였다.
- ③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 ④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⑤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정답> ⑤

'이 지도는 (가)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국가에서는 각지에서 말이 사육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솔빈부의 말은 당에 수출될 정도로 유명하였습니다. 특히,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 반도 지역을 장악하였던 이정기 세력에게 많은 말을 수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지도에는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상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발해 전성기는 제10대 왕인 선왕 대(재위 818-830)이며, 이때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렸다. 또 이정기(732~781)는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 반도 지역에서 절도사를 역임하였다(765).

발해는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거란도는 거란과, 영주도와 조공도는 당과의 주요 교통로였으며, 신라와는 신라도, 일본과는 일본도를 통해 교역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벽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 ② 구황 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한 것은 고려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다.
- ④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09 - 최치원의 시무책 10여 조

9.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청해진의 궁복은 왕이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예측하지 못할 환난이 생길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우려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무주 사람 염장이란 자는 용맹하고 씩씩하기로 당시에 소문이 났는데, 와서 아뢰기를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신은 한 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

- 「삼국사기」 -

- ①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 ②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 ③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④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 ⑤ 원광이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정답> ②

'청해진의 궁복은 왕이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정에서는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예측하지 못할 환난이 생길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우려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무주 사람 염장이란 자는 용맹하고 씩씩하기로 당시에 소문이 났는데, 와서 아뢰기를,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신은 한 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해상왕 장보고((?~846)가 신라의 왕위 교체에 개입하다 결국 문성왕(재위 839-857, 제46대)이 보낸 자격에 의해 피살된 사실에 관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846, 문성왕 8).

최치원(857~?)이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한 것은 894년의 일이다(진성 여왕 8). 하지만 시무책은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오답 해설>

① 해공왕(재위 765-780, 제36대)이 귀족 세력에게 피살된 것은 780년의 일이다. 반란을 일으킨 이찬 김지정에 의해 왕비와 함께 피살되었다*.

*이후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김경신과 함께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고, 해공왕의 뒤를 이어 선덕왕(재위 780-785, 제37대)으로 즉위하였다. 그리고 다시 김경신이 선덕왕을 이어 원성왕(재위 785-798, 제38대)으로 즉위하게 된다. 이처럼 신라 하대에 이르러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심하게 일어나 정치적 상황이 꽤 복잡하게 흘러간다. 특징적인 것은 원성왕 이후 왕위에 오르는 18명의 왕들 중 박씨 출신의 세 왕, 즉 신덕·경명·경애왕을 제외한 15명의 왕들이 모두 원성왕계 후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때의 왕위 쟁탈전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혈족 집단 내부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한 종족 혹은 거기서 더 세분된 가문 단위로 나뉘어 이뤄졌던 셈이다.

- ③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다 진압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
- ④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건의한 것은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
- ⑤ 원광(555~638)이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한 것은 진평왕 23년인 601년의 일이다. 참고로 원광은 진평왕 30년인 608년에는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지은 바 있다. 결사표가 수[양제]에 사신을 통해 보내진 것은 3년 뒤인 611년이다(결사표의 원문은 현재 전하지 않음).

10 - 후고구려의 궁예

10.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②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③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⑤ 정계와 계백묘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 나라를 세우다', '국호를 마진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라고 하다',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다'는 내용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궁예가 송악을 근거지로 후고구려를 세운 것은 900년의 일이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연호를 무태라고 한 것은 904년,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한 것은 905년의 일이다.

후고구려가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한 것은 90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중국의)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인물은 후백제의 견훤(재위 900-935)이다. 후백제는 건국을 전후하여 오월과 교류하다 925년 이후에는 새롭게 건국된 후당과 교류하였으며 927년에는 거란과의 교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 ②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게 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 ③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한 것은 충목왕 3년인 1347년의 일이다. 하지만 부원 세력들의 반발로 정치도감의 본격적 활동은 3개월 만에 와해되고, 결국 2년 뒤인 1349년(충정왕 원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사실 정치도감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원 혜종(재위 1333-1368, 제15대)의 명령 때문이었다.
- ⑤ 정계와 계백묘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것은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의 일이다.

11 - 광군 조직

1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보냈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는 매우 무도하여 친선 관계를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교빙을 끊고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매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나)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백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 1천여 명을 수습하였다. 밤중에 광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적들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인 후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 ①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되었다.
- ②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③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④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⑤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정답> ①

(가)에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보냈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는 매우 무도하여 친선 관계를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교빙을 끊고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매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란을 배척한 이른바 만부교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려 태조 25년인 942년의 일이다. (나)에는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백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 1천여 명을 수습하였다. 밤중에 광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적들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인 후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광주에서의 무신 양규(?~1011)의 활약상으로, 거란의 제2차 침입 초기의 일임을 알 수 있다(1010, 현종 원년).

*만부교 사건: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 50필을 개경의 만부교 아래에 매어놓아 굶어 죽게 한 사건이다.

(거란의)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된 것은 정종 대(재위 945-949, 제3대)의 일이다(947, 정종 2).

오답 해설>

- ② 강감찬(948~1031)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거란의 제3차 침입 시인 현종 10년인 1019년의 일이다(귀주 대첩).
- ③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한 것은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 ④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적장 살리타(?~1232)를 사살한 것은 몽골의 제2차 침입 시인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처인성 전투)(처인부곡의 향전).
- ⑤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된 것은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이성계가 이를 계기로 위화도 회군 단행).

12 - 이자겸의 난

12. 밑줄 그은 '반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1104	1135	1170	1196	1270	1351
(가)	(나)	(다)	(라)	(마)	
별무반 조직	묘청의 난	무신 정변	최충헌의 집권	개경 환도	공민왕 즉위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이것은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연 묘지명으로, 딸 셋을 모두 문종의 왕비로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 최고 권력을 누렸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반란'은 이자연(1003~1061)의 손자 이자겸(?~1126)이 척준경(?~1144)과 함께 일으킨 이자겸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126, 인종 4).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의 장인인 동시에 인종의 외조부였다.

연표에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시기는 별무반이 조직된 1104년과 묘청의 난이 있었던 1135년 사이의 시기인 '(가)' 시기에 해당한다.

<18번 오답 해설>

③ (선조의 계비인) 인목 대비(1584~1632)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는 덕수궁(석어당)이다[1613(광해군 5), 계축옥사].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었는데, 경운궁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1454~1488)의 집터였던 것을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에 경운궁으로 개칭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07년 7월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뒤 이곳에 살면서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에서 다시 명칭이 '덕수궁'으로 바뀌었다(사적 제124호). 주요 건물로 중화전, 석조전, 중명전, 정관헌, 함녕전, 대한문 등이 있다.

④ 삼봉 정도전(1342~1398)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한 궁궐은 경복궁*이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정궁(正宮)이자 법궁(法宮)이다(1395, 태조 4).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궐(北闕)로도 불리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 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어 잠시 궁궐로 사용되었다[1865(고종 2)~1868(고종 5)].

*경복궁에서 '경복'의 유래: 『시경』 주아(周雅)에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리'하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13 - 고려의 경제 상황

1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어요.
- ② 관료전이 폐지되고 녹읍이 지급되었어요.
- ③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법화로 사용되었어요.
- ④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어요.
- ⑤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어요.

정답> ⑤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역사 인물'이라는 제목 아래 '두 분은 모두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어요. 이 인물들이 활동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볼까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왼쪽 말풍선에 '화폐 사용을 주창한 저는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을 축조하였습니다'는 말이, 오른쪽 말풍선에는 '송에 다녀와 운반의 편리 등 화폐 사용의 장점을 강조한 저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9성을 축조한 인물은 윤관(?~1111)이고(1107, 예종 2), (국청사를 본찰로 하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1097, 숙종 2).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것은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② 관료전이 폐지되고 녹읍이 (다시) 지급된 것은 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의 일이다(녹읍 부활).
- ③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법화로 사용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
- ④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통일) 신라 시대의 최대 무역항은 울산항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당항성과 영암도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당항성은 중국의 산둥반도와 연결된 일종의 무역 북로, (전남) 영암은 중국의 양쯔강 지역과 연결된 무역 남로의 무역항이었다. 9세기 전반에는 청해진도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14 - 최우의 활동

14.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 ②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 ③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 ④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 ⑤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고려 고종의 능인 홍릉이 강화도에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몽골 침략 당시 실권자였던 (가)이/가 항전을 위해 강화 천도를 강행한 후에 고종이 이곳에서 승하했기 때문이야'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최씨 무신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우(집권 1219-4129)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최우의 주도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고려 고종(재위 1213-1259, 제23대)].

최우가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한 것은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인물은 최충헌(1149~1219)이다. 이익민을 축출하고 집권한 직후 봉사 10조를 명종에게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1196, 명종 26).
- ③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한 인물은 배중손(?~1271)이다(1270, 원종 11)~1271, 이후 배중손이 전사하고 김방경이 삼별초를 제주도로 옮겨가 이끔).
- ④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한 인물은 (서경 유수) 조위총(?~1176)이다. 명종 4년인 1174년의 일로 조위총의 난이라고 한다(~1176)(조위총의 난). 참고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1173)도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킨 적이 있다(1173, 명종 3)(김보당의 난).
- ⑤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한 인물은 신돈(?~1371)이다(1366, 공민왕 15).

*전민변정도감: 권세자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15 - 쌍성총관부 수복

15.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 ②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 ③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④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다.
- ⑤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원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께서 돌아와 왕이 되신 건 알고 있는가? 이전에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오신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도 그랬다네. 그나저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일본 원정이 더 큰 걱정이군'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원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 '일본 원정'이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대화는 고려 충렬왕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충렬왕(재위 1274-1298, 복위 1298-1308, 제25대)이 원의 제국(대장)공주(1259~1297)와 혼인한 것은 원종 15년인 1274년이고(당시 태자), 원의 요청으로 고려가 일본 원정에 참여한 것은 충렬왕 대의 일이다[1274(충렬왕 즉위년)/1281(충렬왕 7)].

유인우(?~1364), 이자춘(1315~1360)*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것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이자춘: 태조 이성계(1335~1408)의 아버지(부친)

오답 해설>

- ①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이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 ②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
- ③ 뇌천 김부식(1075~1151)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은 고려 인종 23년인 1145년의 일이다.
- ④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1173)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동계에서 난을 일으킨 것은 고려 명종 3년인 1173년의 일이다(김보당의 난).


16 - 고려의 불교문화

16.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특별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불교 문화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 시대의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특별 사진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월관음도

(가)

• 기간: 2023년 ○○월 ○○일~○○월 ○○일
• 장소: △△박물관

- ①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②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③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

④



보은 법주사 팔상전

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답> ④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불교문화'라는 제목 아래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 시대의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특별 사진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수월관음도'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인 17세기의 건축물로,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탑이다(국보 제55호). 정유재란 때 불에 탔는데, 인조 4년(1626)에 다시 축조하였다. 벽의 사방에 각 면 2개씩 모두 8개의 변상도(變相圖)*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변상도: 일종의 종교화로,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오답 해설>

①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은 송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다각다층형 석탑이다(국보 제48-1호).

②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초기의 불상이다(고려 광종 대).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고 인정받아 2018년에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다. '은진 미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는 고려 승려 지광국사 해린(984~1070)의 것이다. 지광국사는 문종 때의 국사(國師)로 현화사를 중심으로 법상종을 크게 발전시킨 고승이었다. 참고로 탑비[부도비]는 승려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행적 등을 기록한 비석으로, 고승(高僧)이 입적한 후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승탑[부도]과 함께 세워졌다. 탑비에 새겨진 기록에 의하면 탑비는 해린이 입적한 15년 후인 선종 2년(1085)에 세워졌다.

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의 목조 건축물이다(국보 제18호). 배흘림 기둥에 중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17 - 조선 세종 시기의 사실

17.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책



동국정운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으로, 집현전 학사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의 명을 받아 편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국어 연구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 ①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 ②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 ③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되었다.
- ④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 ⑤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정답> ①

'동국정운'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고,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으로, 집현전 학사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의 명을 받아 편찬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국어 연구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韻書)*인 동국정운이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에 의해 편찬[간행]된 것은 세종 30년인 1448년의 일이다(국보 제142호).

*운서: 한자를 운(韻)으로 분류하여 주석한 사전(서적)을 가리킨다. 중국어의 음절은 크게 성모(聲母), 운모(韻母), 성조(聲調)의 세 부분으로 나뉘고, 운모는 다시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성모는 한국어의 초성, 운두는 반모음, 운복은 반모음을 제외한 중성, 운미는 중성에 해당하는다. 이때 어떤 한자에 대하여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한자의 운모와 성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운(韻)이라고 한다. 운서 편찬 시에는 우선 모든 한자들을 사성 사성별(四聲別)로 나누고, 같은 성조(聲調)를 가진 한자들은 다시 운(韻)이 같은 한자들끼리 모은 다음, 운이 같은 한자들은 성모(聲母)가 같은 한자들끼리 모은다. 즉 사성별·운별·성모별로 한자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주로 운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운서라고 한다. 참고로 한자의 사전에는 대체로 훈고(訓誥)·자서(字書)·운서(韻書)의 세 가지가 있다.

금속 활자인 갑인자(甲寅字)가 제작된 것은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수도 방위를 위하여 금위영이 설치된 것은 숙종 8년인 1682년의 일이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인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③ 훈련[무예]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된 것은 정조 14년인 1790년의 일이다. 규장각 검서관인 이덕무(1741~1793)와 박제가(1750~1805)가 장용영 소속 장교 백동수(1743~1816) 등과 함께 편찬하였다.

④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⑤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정암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량과가 시행된 것은 중종 14년인 1519년의 일이다. 현량과는 사람들의 중용[청요직 임명]을 위해 조광조가 건의한 것이다.

18 - 창덕궁

18.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 ②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 ③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 ④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 ⑤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정답> ⑤
 '2023 달빛 기행'이라는 제목 아래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 (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빛과 별이 어우러진 밤하늘 아래 자연과 어우러진 고궁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관람 동선으로는 '돈화문 → 금천교 → 인정전 → 낙선재 → 부용지 → 연경당 → 후원 숲길 → 돈화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궁궐'은 창덕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창덕궁(昌德宮)은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기 시작하였다(1405, 태종 5). 경복궁 동쪽 향교동에 새로 지은 궁궐로,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이고, 금천교는 돈화문과 진선문 사이의 금천에 만들어진 돌다리이고,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正殿)*이다. 낙선재와 연경당은 사대부 주택 양식의 건물로 낙선재는 왕이 책을 읽고 쉬는 공간, 즉 서재 겸 사랑채로 조성되었고, 연경당은 일종의 접견실로 활용되었다. 후원(後苑)은 창덕궁 북쪽의 정원(부용정)이고, 부용지는 후원의 사각형 연못이다. 창덕궁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다른 궁과 더불어 잿더미로 변하였으나 광해군 원년(1609)에 인정전 등 주요 전각이 복구되었다.

*정전: 임금이 정사를 돌보던 곳(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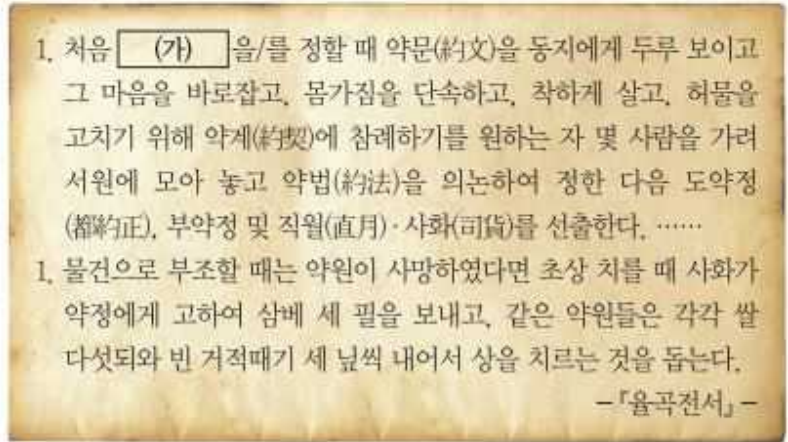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된 궁궐은 창경궁이다.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수강궁(壽康宮)으로,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생존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다(사적 제123호).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다. 순종 즉위 후 창경궁은 일제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었는데, 1909년(순종 3) 일제는 궁 안의 전각들을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였고, 궁원을 일본식으로 변모시켰다. 한일 병탄이 이루어진 직후인 1911년에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시켰다.
- ②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西闕)이라고 불린 궁궐은 경희궁이다. 경희궁은 원래 경덕궁으로 불렸다. 처음 창건 때는 유사시에 왕이 본궁을 떠나 피우(避寓)하는 이궁(離宮)으로 지어졌으나 궁의 규모가 크고 여러 임금이 이 궁에서 정사를 보았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다. 영조 때 궁명을 경희궁으로 고쳤다.

<12번 아래 나머지 오답 해설>

19 - 향약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7재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 ②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하였다.
- ③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 ④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 ⑤ 매향(埋香)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정답> ④

'1. 처음 (가)을/를 정할 때 약문(約文)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 약계(約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에 모아 놓고 약법(約法)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 도약정(都約正), 부약정 및 직월(直月)·사화(司貨)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 물건으로 부조할 때는 약원이 사망하였다면 초상 치를 때 사화가 약정에게 고하여 삼베 세 필을 보내고, 같은 약원들은 각각 쌀 다섯되와 빈 거적때기 세 낱씩 내어서 상을 치르는 것을 돕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울곡전서』임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향약(鄉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울곡 이이(1536~1584)는 선조 10년인 1577년에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해주 향약은 이이가 해주 석담 지방 향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약된 것이 아니라 해주 지방의 유생이나 향사족들이 권선징악과 상호부조를 통하여 향사풍(鄉士風)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향규약으로 제정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한국 향약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약은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국자감에 둔 것은 고려 예종 4년인 1109년의 일이다.
- ②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한 것은 홍문관이다.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언론 3사(삼사)로 불린 홍문관은 성종 9년인 1478년에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후 홍문관은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였으며,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등으로 불렸다.
- ③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한 기구는 지방의 교육 기관인, 향교이다.
- ⑤ 매향(埋香)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한 것은 향도(香徒)이다. 향도는 삼국 시대에 처음 조직되었는데, 그때는 불교 신자들의 결사체로 석탑·불상·종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매향과 같은 불사(佛事)를 행하였다. 그러다가 고려 말 이후부터는 향촌의 여러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 - 조선 후기의 모습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 우리나라는 물력(物力)이 부족하여 요역이 매우 무겁습니다. 매번 나라의 힘으로 채굴한다면, 노동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은관(採銀官)에게 명해 광산을 개발한 이후 백성을 모집하여 [채굴할 것을]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세를 거두도록 하되 그 세금의 많고 적음은 [채은관이] 적당히 헤아려 정하게 한다면 관에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세입이 저절로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①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 ② 초조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는 승려
- ③ 빈공과를 준비하는 6두품 출신 유학생
- ④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 ⑤ 고추,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정답> 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물력(物力)이 부족하여 요역이 매우 무겁습니다. 매번 나라의 힘으로 채굴한다면, 노동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채은관(採銀官)에게 명해 광산을 개발한 이후 백성을 모집하여 [채굴할 것을]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세를 거두도록 하되 그 세금의 많고 적음은 [채은관이] 적당히 헤아려 정하게 한다면 관에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세입이 저절로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광산 개발 정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17세기에 이르러 조선 정부는 농민을 역에 동원하여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와 같이 광산 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에게 경영을 맡기고 대신 채취한 광물을 수세하는 설점수세 방식을 도입되었다(1651, 효종 2)*.

*설점 수세제는 다시 숙종 때에 호조의 별장이 광산 경영을 지휘 감독하는 별장제로 바뀌었다가(1687, 숙종 13) 영조 때에는 별장제를 폐지하고 수령이 직접 수세하는 수령 수세제로 다시 바뀌었다(1775 영조 51). 이때의 광산 경영은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대고 덕대(德大)나 혈주(穴主)가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형태였다(광군과 제련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채굴·제련).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광산 개발 정책을 펼치자(설점수세, 수령 수세) 민영 광산이 크게 증가하고 또 불법적인 잠채도 성행하게 되었다.

고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 기관이다(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 교육).
- ②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인한)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의 일이다(~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다(1232, 고종 19).
- ③ 빈공과(實貢科)는 당 과거제의 한 과(科)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통일) 신라와 발해인들이 많이 응시하였다. 신라의 경우 특히 6두품 출신들이 많이 유학하여 응시하였다. 신라와 발해는 빈공과 합격자의 석차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 ④ 과전법이 시행된 것은 고려 공양왕 33년인 1391년의 일이다.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고, 관료 사후에는 회수하였다. 또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수조권만 지급하였지(수조권 분급)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

21 - 진주 농민 봉기

21.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며칠 전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가 전하께 특별 기구 설치를 상소하였다고 하네.

그렇다네. 전하께서 이를 받아들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각 고을마다 대책을 모아 올려 보내라고 명하셨지.



- 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② 윤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③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며 삼례 집회를 개최하였다.
- ④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 ⑤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가 전하께 특별 기구 설치를 상소하였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렇다네. 전하께서 이를 받아들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각 고을마다 대책을 모아 올려 보내라고 명하셨지'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은 진주 농민 봉기가 발생하여 안핵사로 파견된 환재 박규수(1807~1877)의 건의로(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62.5, 철종 13).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말했듯이 당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재임하던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기 때문이다(진주 농민 봉기)(1862.2, 철종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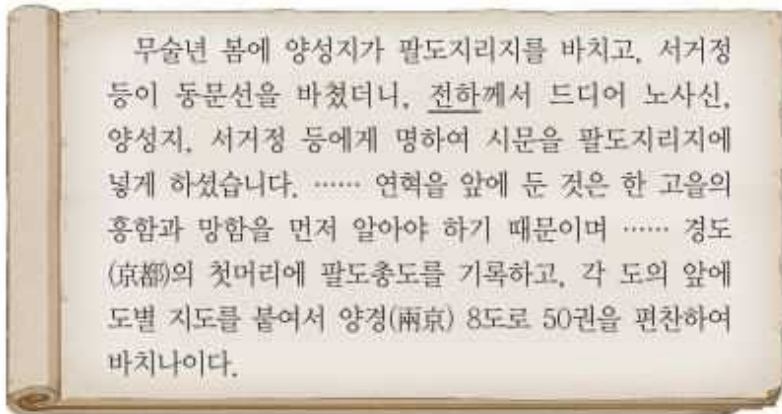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이만손(1811~1891) 등이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린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2월의 일이다(위정척사 운동의 하나인 1880년대의 개화 반대 운동).
- ② 일본 군함 윤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윤요호 사건).
- ③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며 삼례 집회를 개최한 것은 고종 29년인 1892년 11월의 일이다(전북 완주군 삼례읍 일대).
- ④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후 갖고 있다 체포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 9월의 일이다(황사영 백서 사건). 1801년 1월부터 시작된 신유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 굽는 마을로 피신하여 토굴에 숨어 지낸 황사영은 박해의 경과와 재건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이 62cm, 너비 38cm의 흰 비단에 총 122행, 도합 12,384자를 검은 먹글씨로 깨알같이 썼으며, 이를 북경의 구배아 주교(?~1808)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황사영 백서 내용: 구체적으로는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2 - 조선 성종 대의 사실

22. 밑줄 그은 '전하'가 재위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예학을 정리한 가례집람이 저술되었다.
- ② 외교 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회고가 편찬되었다.
- ③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 ④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 ⑤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만들어졌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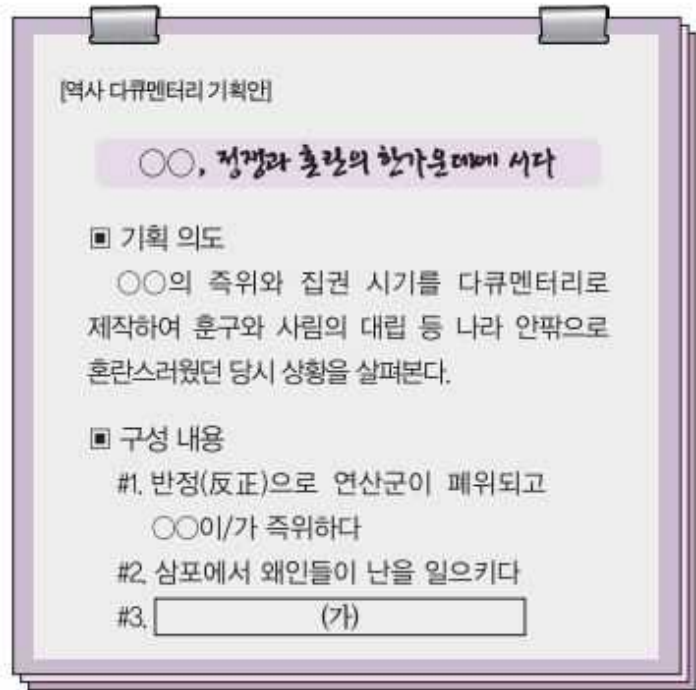
'무술년 봄에 양성지가 팔도지리지를 바치고, 서거정 등이 동문선을 바쳤더니, 전하께서 드디어 노사신, 양성지, 서거정 등에게 명하여 시문을 팔도지리지에 넣게 하셨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연혁을 앞에 둔 것은 한 고을의 흥함과 망함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경도(京都)의 첫머리에 팔도총도를 기록하고, 각 도의 앞에 도별 지도를 붙여서 양경(兩京) 8도로 50권을 편찬하여 바치나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팔도지리지'와 '동문선' 등을 바쳤다는 부분과 '연혁을 앞에 둔 것은 한 고을의 흥함과 망함', '양경(兩京) 8도로 50권을 편찬' 등의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전하'는 조선의 제9대 국왕인 성종(재위 1469-1494)이고, 주어진 자료 전체는 성종 12년인 1481년에 완성[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것은 성종 5년인 147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례집람이 저술한 인물은 서인의 영수이자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1548~1631)이다. 가례집람은 김장생 사후인 숙종 11년(1685)에 간행되었다.
- ② 외교 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회고가 편찬된 것은 정조 12년인 1788년의 일이다.
- ④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내의원에서) 간행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 집필을 끝낸 것이 광해군 2년인 1610년이다.
- ⑤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만들어진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의 일이다.

23 - 조선 중종 대의 상황

2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괄이 난을 일으켜 도성을 점령하다
- ②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다
- ③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다
- ④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다
- 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다

정답> ④

'○○,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다'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의 즉위와 집권 시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훈구와 사림의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구성 내용으로 '#1. 반정(反正)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이/가 즉위하다', '#2. 삼포에서 왜인들이 난을 일으키다', '#3. (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은 조선의 제 11대 국왕인 중종(재위 1506-1544)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것은 중종 14년인 1519년 11월의 일이다(기묘사화).

오답 해설>

- ① 이괄(1587~1624)이 난을 일으켜 도성[한양]을 점령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 2월의 일이다.
- ② 허적(1610~1680)과 윤휴(1617~1680)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된 것은 경신환국 때의 일이다(1680, 숙종 6).
- ③ 정여립(1546~1589)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 10월의 일이다.
- 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1464~1498) 등의 사림이 화를 입은 것은 무오사화 때의 일이다(1498, 연산군 4).

24 - 임진왜란

24.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②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 ③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 ④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 ⑤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정답> ②

'(가) 당시 활약한 의병장'이라는 제목 아래 '조헌은 금산에서 7백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 외 '김천일, 정문부, 사명 대사(유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임진왜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592.4~1598.11). 조헌(1544~1592)은 임진왜란 당시 충남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한 의병장이다(금산 전투, 1592.7~8).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이 동래성에서 항전하다 순절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선조 25) 4월 15일의 일이다(같은 해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 발생).

오답 해설>

- ① 이종무(1360~1425)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쓰시마섬]를 정벌한 것은 세종 원년인 1419년 6월의 일이다.
- ③ 김상용(1561~1637)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은 병자호란 때인 1638년(인조 16) 1월의 일이다.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이듬해인 1638년 1월 청군에 의해 성이 함락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참고로 이때 김상용의 죽음이 스스로 분신한 것이 아니라 실화(失火) 때문이라는 이설도 있다.
- ④ 최영(1316~1388)이 (충청도) 홍산에서 왜구를 물리친 것은 고려 우왕 2년인 1376년 7월의 일이다(홍산 대첩). 홍산은 지금의 충남 부여 지역이다.
- ⑤ 강홍립(1560~1627)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 3월의 일이다.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이 후금[청]의 군대가 만주의 사르후에서 맞서 싸운 전투로 조·명 연합군이 대패하였다. 이후 명청 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1619.3.1~4).

25 - 조선 후기의 문화

25. 밑줄 그은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금강전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졌다.
- ②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 ③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이 성행하였다.
- ④ 춘향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 ⑤ 홍길동전, 박씨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정답> ②

'이 그림은 조영석과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인부들이 말발굽에 징을 박는 모습과 기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시된 그림에는 사대부 화가인 관아재 조영석(1686~1761)의 풍속화 '말장박기'와 단원 김홍도(1745~?)의 풍속화 '기와이기'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시기'는 조선 후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역법으로 (원외) 수시력이 도입된 것은 고려 충렬왕 대(재위 1274-1308. 제25대)의 일이다. 수시력이 채용되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충선왕 대(재위 1308-1313. 제26대)이다.

오답 해설>

- ① 금강전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진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금강전도는 겸재 정선(1676~1756)의 작품으로 '인왕제색도'와 함께 정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59세인 1734년(영조 10) 작). 거센 필선으로 중첩(重疊)한 무수한 봉골(峯骨)을 죽죽 그려내린 것으로, 금강산과 같은 골산(骨山)에 알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③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이 성행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춘향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한 것도 조선 후기이다.
- ⑤ 홍길동전, 박씨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힌 것도 조선 후기이다.

26 - 조선 정조 시기의 사실

26.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 왕이 말하기를, "속전(續典)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선왕의 명령으로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먼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김치인 등에게 명하여 원전(原典)과 속전 및 지금까지의 왕명을 모아 한 책으로 편찬한 것이었다.

- ①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 ②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④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 ⑤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정답> ①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말하기를, 속전(續典)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선왕의 명령으로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먼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김치인 등에게 명하여 원전(原典)과 속전 및 지금까지의 왕명을 모아 한 책으로 편찬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이 간행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한 것은 순조 11년인 1811년의 일이다[1811.12~1812.4(음력)].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발생한 것은 현종 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자의 대비: 16대 국왕인 인조의 계비(1624~1688)

④ 이인좌(1695~1728)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영조 4년인 1728년의 일이다(이인좌의 난, 무신란).

⑤ (무신) 신류(1619~1680)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효종 9년인 1658년의 일이다. 청의 요청에 의한 나선 정벌은 두 차례 단행되었는데 신류는 두 번째이고, 첫 번째 정벌은 효종 5년인 1654년 (무신) 변급(?~?)에 의해 이루어졌다.

27 - 다산 정약용

2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1점]



- ①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 ②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③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④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⑤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답> ⑤

주제로 '(가)의 강진 유배지를 찾아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해장선사의 주선으로 거처한 곳'으로 '보은산방'이, '읍내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아학편훈의』를 편찬한 곳'으로 '사의재'가, '10여 년간 머무르며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집필한 곳'으로, '다산초당'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 중이던 전남 강진에서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1817, 순조 17).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789, 정조 13).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는 물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도 활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일본에 다녀와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인물은 보한재[희현당] 신숙주(1417~1475)이다(1471, 성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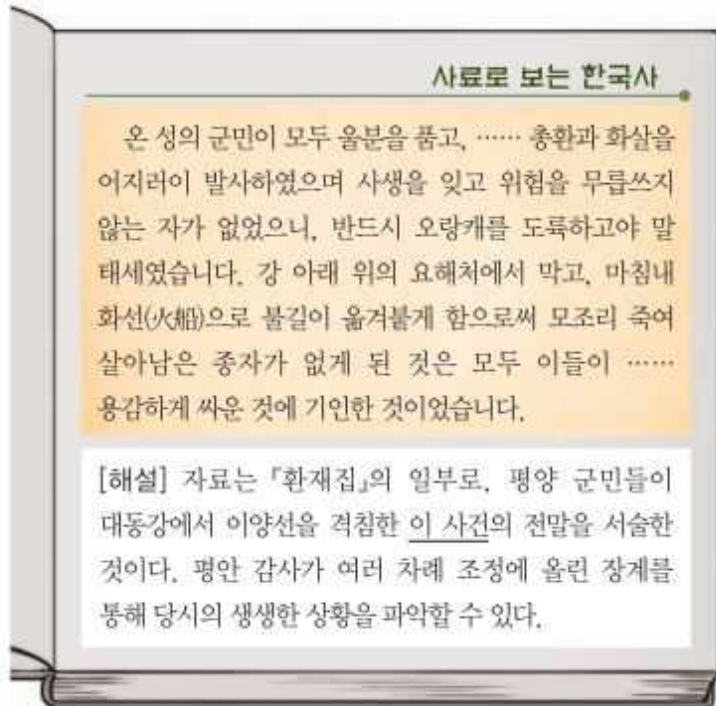
②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인물은 풍기군수를 역임한 주세붕(1495~1554)이다(1543, 중종 38).

③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1852, 철종 3).

④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28 - 제너럴 서면호 사건

28.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유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 ②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 ④ 외교장각 도서가 국외로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오페르트(Offert)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정답> ②

'온 성의 군민이 모두 울분을 품고, …… 총환과 화살을 어지러이 발사하였으며 사생을 잇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반드시 오랑캐를 도륙하고야 말 태세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 아래 위의 요해처에서 막고, 마침내 화선(火船)으로 불길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모조리 죽여 살아남은 종자가 없게 된 것은 모두 이들이 …… 용감하게 싸운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해설로 '자료는 『환재집』의 일부로,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한 이 사건의 전말을 서술한 것이다. 평안 감사가 여러 차례 조정에 올린 장계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사건'은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너럴 서면호를 평양 관민이 불태워 격침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이른바 '제너럴 서면호 사건'으로, 고종 3년인 1866년 7월에 일어난 일이다. 이때 마침 환재 박규수(1807~1876)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 중이었다.

제너럴 서면호 사건은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1871.5, 고종 8).

오답 해설>

- ① 신유박해가 일어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
- ③ 전주 화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5월의 일이다(1894.5.8 (음력)/1894.6.6(양력), 동학 농민 운동).
- ④ 외교장각 도서가 국외로 약탈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10월에 일어난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
- ⑤ (독일계 유대 상인인) 오페르트(1832~1903)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

<29번 오답 해설>

④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인물은 군사장인 왕산 허위(1855~1908)이다(1908.1).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은 이인영(1868~1909)이지만 이인영은 선발대 300명이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여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는 중 부친상을 빌미로 지휘권을 군사장인 왕산 허위에게 맡기고 낙향하고 말았다.

⑤ 보국안민을 기치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운 인물은 전봉준(1855~1895)이다. 우금치 전투는 고종 31년인 1894년 11월 9일에서 12일까지 벌어졌다. 참고로 우금치는 지금의 충남 공주시 금학동과 주미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당시 공주 남쪽을 지키는 관문이었다.

29 - 면암 최익현

2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 ②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하였다.
- ③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④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⑤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③

'(가)의 상소,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다'는 제목 아래 '흥선 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린다', '지부복궐척화외소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다',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면암 최익현(1833~190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최익현이 흥선 대원군을 탄핵하여 하야시킨 것은 고종 10년인 1873년 11월의 일이고(계유상소(10월 16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상소), 고종의 친정 체제로 전환),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체결이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전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조헌(1544~1592)의 예를 따라] 도끼를 가지고 광화문 앞에 가 상소한 것은 고종 13년인 1876년 1월의 일이다[지부복궐척화외소(병자지부<복궐>소(丙子持斧<伏闕>疏), 1876.1.22)(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1879년에 해배). 마지막으로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6월의 일이다(청토역복외제소(請討逆復外制疏), 일제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그에 영합하여 개혁을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고 관제와 의제 등을 갑오개혁 이전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 1895.6.26)*. 해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최익현은 이미 같은 해 6월에, 3월에 내려진 (을미)변복령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린 바 있다. 여기서 당시 변복령 이후에는 단발령이 내려질 것임을 예상하였기 때문에(당시 다른 유림들도 예상) 그에 반대하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후 을미사변과 실제 단발령 시행을 목격하면서 최익현은 상소가 아니라 아예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하였다[단발령은 아관 파천 직후 고종이 칙령을 내려 (일시) 정지]*.

*본 문제의 자료와 같이 많은 글에서 최익현이 흔히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상소를 올린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최익현이 실제 단발령 시행을 전후하여 올린 상소는 확인되지 않는다(직접 의병을 일으킬 생각이었기에 없는 것으로 추정. 그 전인 6월에 올린 청토역복외제소만이 가장 근접하는 상소에 해당). 어쨌든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익현은 1906년 4월에 을사늑약 강요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1905년에 을사 오적을 토죄하기를 청하는 소인,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 1906년에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는 소인,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 올림].

오답 해설>

- ①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한 (대표적인) 인물은 박상진(1884~1921)이다(1917.7).
- ②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한 인물은 민족주의 사학자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15.6).

30 - 갑신정변

30.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 활동과 청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하여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우궁으로 옮기시게 한 후 일본 병사로 하여금 호위할 방침을 세웠다. 곧이어 주상께 일본군의 지원을 구하도록 요청하니, 주상은 곧 영숙문 앞 노상에서 연필로 "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라."라는 글을 친히 쓰시어 주시는지라, 졸지에 변란을 만난 사대당의 거두들은 주상께서 경우궁에 계심을 듣고 입궐하다가 민영목, 민태호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였다.

1866	1873	1882	1885	1894	1899
(가)	(나)	(다)	(라)	(마)	
병인 박해	고종 친정	임오 군란	텐진 조약	청일 전쟁 발발	대한국 국제 반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 활동과 청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하여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우궁으로 옮기시게 한 후 일본 병사로 하여금 호위할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곧이어 주상께 일본군의 지원을 구하도록 요청하니, 주상은 곧 영숙문 앞 노상에서 연필로 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라라는 글을 친히 쓰시어 주시는지라. 졸지에 변란을 만난 사대당의 거두들은 주상께서 경우궁에 계심을 듣고 입궐하다가 민영목, 민태호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상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김옥균(1851~1894), 박영효(1861~1939), 홍영식(1855~1884), 서광범(1859~1897), 서재필(1864~1951) 등의 급진 개화파에 의해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에 발생한 갑신정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84.10.17~19(음력)/1884.12.4~6(양력)].

주어진 연표에서는 1882년 임오군란과 1885년 텐진 조약 사이의 시기인 '(다) 시기'에 해당한다.

<43번 나머지 해설>

- ㄱ. (가) 9주는 5소경과 함께 신문왕 재위 시기에 정비되었다. 신문왕 5년인 685년의 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ㄴ. (나)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이다. 『신당서』에 고구려에는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는데 도둑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는 기록이 있다. 대성의 장관이 '녹살'로 되어드는 이는 '육살(禰薩·禰薩·禰薩)'을 가리킨다.
- ㄷ. (다)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을 감독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처음에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다가 세조 대에 관찰사로 굳어졌다(1466, 세조 12). 임기는 초기에 1년이었다가 후에 2년으로 되었으며 고려에 비해 종2품으로 품계도 높아졌다.
- ㄹ. (라) 전국을 23부로 나눈 것은 광무개혁 때가 아니라 갑오개혁(제2차) 때의 일이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31 - 제1차 갑오개혁

31.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 각하께
 전임 일본 공사는 국왕에게서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개혁 위원회[군국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후 개혁 위원회[군국기무처]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몇몇 조치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니 이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인들은 이 기구가 왕권을 빼앗고 일본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어떤 지방에서는 왕권 수호를 위해 봉기했다고 합니다.
 주 조선 공사 르페브르 올림

- <보기>
- ㄱ.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 ㄴ.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 ㄷ.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ㄹ.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 각하께'라는 제목 아래 '전임 일본 공사는 국왕에게서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개혁 위원회[군국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 남겨 놓았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개혁 위원회[군국기무처]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몇몇 조치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니 이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인들은 이 기구가 왕권을 빼앗고 일본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어떤 지방에서는 왕권 수호를 위해 봉기했다고 합니다(주 조선 공사 르페브르 올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개혁안'은 군국기무처*를 통해 이루어진 제1차 갑오개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4.6.25~12.17).

*조선 정부는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위해 처음에 교정청이 설치하였으나(1894.6.11),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을 협박하는 등(1894.6.21) 일본의 강요로 의정부 산하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1894.6.25).

- ㄱ.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 ㄴ.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6조를 8아문으로 개편, 탁지아문은 8아문 중의 하나). 옳은 내용이다.
- ㄷ.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地契)를 발급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899~1903).
- ㄹ. (봉건적 악습인)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옳은 내용이다. 그 외 고문과 연좌제도 금지하였다.

이상에서 제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옳은 내용은, 'ㄴ과 ㄹ'이다.

32 - 독립 협회

32.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은/는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열었다. 회장은 모임을 여는 큰 뜻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황제 폐하께서 대황제라는 존귀한 칭호를 갖게 되신 계천(繼天) 경축일이니, 대한의 신민은 이를 크게 경축드립니다. 우리는 관민 공동회에서 황실을 공고히 하고 인민을 문명 개화시키며 영토를 보존하고자 여섯 개 조항의 의견안을 바쳤습니다."라고 말하였다. …… 이어 회원들은 조칙 5조와 헌의 6조 10만 장을 인쇄하여 온 나라에 널리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다. 경축연을 마친 회원들은 울긋불긋한 종이꽃을 머리에 꽂은 채 국기와 (가) 의 깃발을 세우고 경축가를 부르며 인화문 앞으로 가서 만세를 외치고 종로의 만민 공동회로 갔다.

- 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 ②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 ③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계몽 서적을 보급하였다.
- ④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정답> ②

'(가)은/는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열었다. 회장은 모임을 여는 큰 뜻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황제 폐하께서 대황제라는 존귀한 칭호를 갖게 되신 계천(繼天) 경축일이니, 대한의 신민은 이를 크게 경축드립니다. 우리는 관민 공동회에서 황실을 공고히 하고 인민을 문명 개화시키며 영토를 보존하고자 여섯 개 조항의 의견안을 바쳤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회원들은 조칙 5조와 헌의 6조 10만 장을 인쇄하여 온 나라에 널리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다. 경축연을 마친 회원들은 울긋불긋한 종이꽃을 머리에 꽂은 채 국기와 (가)의 깃발을 세우고 경축가를 부르며 인화문* 앞으로 가서 만세를 외치고 종로의 만민 공동회로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내용이 길지만 '독립관', '관민 공동회', '헌의 6조', '만민 공동회'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독립 협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또 대한 제국이 수립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계천 경축일(1897.10.12)이라고 하였으니, 자료는 이듬해인 1898년 10월 12일을 가리킴을 짐작할 수 있다.

*인화문(仁化門): 덕수궁(경운궁)의 본래 정문이었지만(중화전 남쪽에 위치), 일제 강점기 때 도로 개설을 구실로 헐어버렸다. 따라서 지금은 동문인 대한문이 정문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 협회는 러시아의 (저탄소 설치를 명목으로 한)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 조차** 요구(1897.7)를 저지하였다(1898.2).

**조차(組借):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일

오답 해설>

- 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
- ③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계몽 서적을 보급한 단체는 신민회이다(1907.4~1911.9). 신민회는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서울, 평양, 대구에서) 태극 서관을 운영한 바 있다(1908.5).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한 단체이다(1907.4~1911.9).
- ④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이다(1922.11). 1923년 3월에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 [창립] 총회가 열렸다.
- ⑤ 조소앙(1887~1958)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발표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41.11).

33 - 오산 학교 설립

33.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한성 사범 학교 규칙

- 제1조 한성 사범 학교는 칙령 제79호에 의해 교원에 활용할 학생을 양성함.
- 제2조 한성 사범 학교의 졸업생은 소학교 교원이 되는 자격이 있음.
- 제3조 한성 사범 학교의 본과 학생이 수학할 학과목은 수산·교육·국문·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작문·체조로 함.

- ① 길모어 등이 육영 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 ②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 ③ 이승훈이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 학교를 세웠다.
- ④ 함경도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 학사를 설립하였다.
- ⑤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정답> ③

'한성 사범 학교 규칙'이라는 제목 아래 '제1조 한성 사범 학교는 칙령 제79호에 의해 교원에 활용할 학생을 양성함', '제2조 한성 사범 학교의 졸업생은 소학교 교원이 되는 자격이 있음', '제3조 한성 사범 학교의 본과 학생이 수학할 학과목은 수산·교육·국문·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작문·체조로 함'이라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895년 2월 반포된 교육입국 조서를 계기로 한성 사범 학교와 한성 외국어 학교가 세워졌다. 한성 사범 학교 관제는 같은 해 4월에, 한성 외국어 학교 관제는 5월에 공포되었다. 또 한성 사범 학교 규칙은 7월에 공포되었다. 남강 이승훈(1864~1930)이 민족정신의 고취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평북 정주에 오산 학교를 세운 것은 1907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미국인 3인인 헐버트(1863~1949), 길모어(1858~1933), 벙커(1853~1932)가 육영 공원 교사로 초빙된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의 일이다. 육영 공원의 선발 인원은 35명이고, 지원 자격은 좌원의 경우 '7품 이하 젊은 현직 관리', 우원의 경우 '15~20세의 양반 자제'였다. 영어, 수학, 자연 과학 등을 교과목으로 하였다.
- ②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8월의 일이다(통변 학교). 최초의 관립 외국어 학교이다.
- ④ 함경도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 학사를 설립한 것 역시 고종 20년인 1883년 8월의 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로,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⑤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2월의 일이다.

34 - 대한매일신보

34.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다.
- ②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 ③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④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
- ⑤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경천사지 십층 석탑에 대한 일본인의 약탈 행위에 관해 보도한 (가) 기사를 읽어 보았는가? 보도 내용을 접한 험버트가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 의견을 청취했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일본인의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한 (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대한매일신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4.7.18). 영국인 베델(1872~1909)과 함께 우강 양기탁(1871~1938)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1907.2~1908.7).

오답 해설>

- ①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은 신문은 한성주보이다(1886.1, 고종 23).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 ②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된 신문은 만세보이다(1906.6).
- ④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한 신문은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이다. 손기정 선수(1912~2002)는 1936년 8월 9일에 있었던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그 소식을 조선중앙일보가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없앤 기사를 통해 처음 보도하였다(8월 13일). 이후 동아일보가 이 사진을 다시 게재하였다가 무기 정간 처분을 당하였다(8월 25일,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
- ⑤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신문은 한성순보이다(1883.10, 고종 20). 한성순보는 근대적 신문의 효시로,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35 -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35. 밑줄 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 ② 일본과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 ③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 ④ 대한 제국이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 ⑤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가 강요되었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뺏으려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안중근 의사(1879~1910)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통감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저격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밑줄 그은 '전쟁'은 러일 전쟁을 가리킨다(1904.2~19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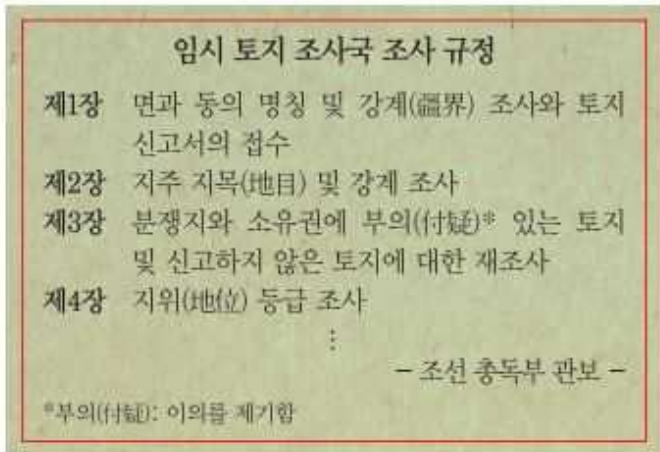
대한 제국이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과 감옥 사무의 처리권)을 박탈당한 것은 1909년 7월의 일이다(1909.7.12).

오답 해설>

- ①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1월의 일이다(1905.1.28, 내각 회의에서 결정). 이어 같은 해 2월에 일본은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 독도를 시마네 현에 무단 편입시켰다(1905.2.22,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 ② 일본과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은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5.7.29).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 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 아래 한반도의 식민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③ 일본인 메가타 다넨타로(1853~1926)가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된 것은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1904.8.22). 이듬해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1905.7~1909.12).
- ⑤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가 강요된 것은 1904년 2월의 일이다(1904.2.23).

36 - 1910년대의 사실

36.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 ③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 ④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정답> ①

'임시 토지 조사국 조사 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제1장 면과 동의 명칭 및 강계(疆界)* 조사와 토지 신고서의 접수', '제2장 지주 지목(地目)* 및 강계 조사', '제3장 분쟁지와 소유권에 부의(付疑)* 있는 토지 및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조사', '제4장 지위(地位)* 등급 조사'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치된 것은 한국 병탄 전인 1910년 3월의 일이다.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1910~1918).

*강계(疆界)는 원래 '나라의 경계'를 뜻하나 여기서는 '땅의 경계'를 가리킨다. 지목(地目)은 '(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 부의(付疑)는 '이의를 제기함', 지위(地位)는 '땅이 차지하는 자리나 위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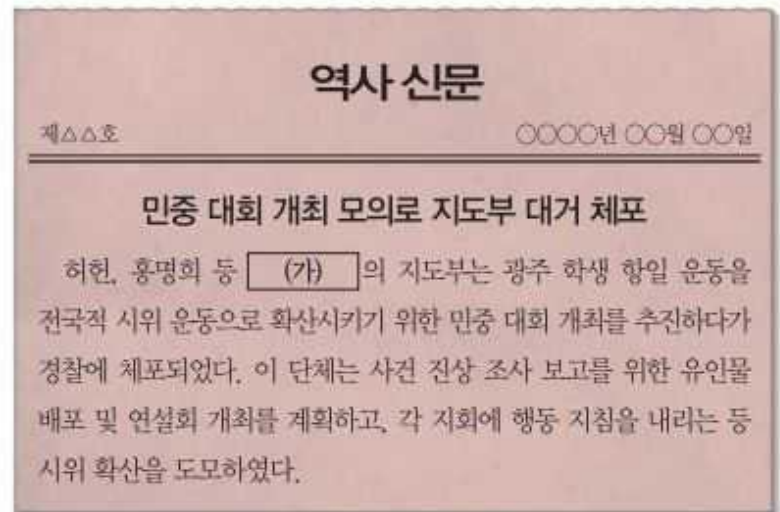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이며, 1920년 4월에 이르러서는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역으로 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오답 해설>

-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1929.1.13~4.6).
- ③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1938.4.1)(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
- ④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된 것은 1920년 4월의 일이다(1920.4.11). 같은 해 9월에 공제(共濟)라는 기관지를 창간하여 발행하였다(~1921.6).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된 것은 1941년 2월의 일이다(1941.2.12)(같은 해 3월 10일부터 시행). 참고로 일제는 그전인 1936년 12월에 일제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만든 바 있다(1936.12.12).

37 - 신간회

3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암태도 소작 쟁의를 지원하였다.
- ② 민족 협동 전선으로 결성되었다.
- ③ 부민관 폭파 사건을 주도하였다.
- ④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정답> ②

'민중 대회 개최 모의로 지도부 대거 체포'라는 제목 아래 '허헌, 홍명희 등 (가)의 지도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 시위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 대회 개최를 추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단체는 사건 진상 조사 보고를 위한 유인물 배포 및 연설회 개최를 계획하고, 각 지회에 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시위 확산을 도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신간회를 가리킬 수 있다.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민족 협동 전선 차원에서 힘을 합쳐 결성된 단체이다(1927.2.15). 당시 강령으로 '정치적·경제적 각성,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자 배척'을 내세웠다.

오답 해설>

- ① 암태도 소작 쟁의가 있었던 것은 1923년 8월의 일이다.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전남 신안군에 속한 암태도에서 발생한 쟁의이다. 암태도 농민들은 이후 1년 동안 소작 쟁의를 벌인 끝에 결국 승리하였다.
- ③ (경성의) 부민관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45년 7월의 일이다(1945.7.25, 부민관 투탄 의거). 당시 친일파의 거두 박춘금(1891~1973)이 일제 총독부 고관과 국내 친일파 다수를 모아놓고 친일 어용 대회인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열자 조문기(1927~2008), 유만수(1924~1975), 강윤국(1926~2009) 등의 대한애국청년당 단원들이 폭탄을 터뜨려 응징하였다(대한애국청년당은 1945년 5월 서울에서 결성, 총독과 친일파 거두 3인 암살을 모의).
- ④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다(1919.11). 단재 신채호(1880~1936)에 의해 작성된 조선 혁명 선언이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
- 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한 단체는 소년 운동을 추진한 천도교이다. 정확하게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1923.5),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1923.3).

38 - 물산 장려 운동

38.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되었다.
- ②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 ③ 황국 중앙 총상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한성 은행, 대한 천일 은행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 ⑤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이것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된 이 운동의 선전 행렬을 보여주는 사진이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내세웠지만,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운동'은 1920년대에 활발하게 펼쳐진 물산 장려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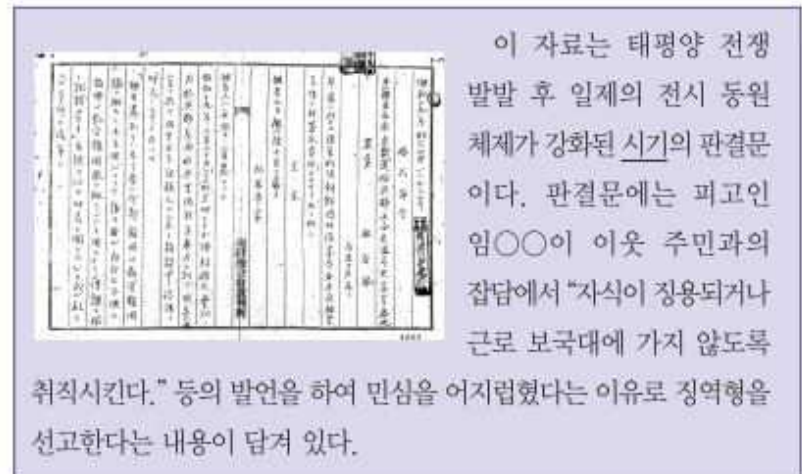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관세령이 폐지된 1923년 4월 이후 더욱 확산되었다(1912년 4월 시행). 일본산 물산의 수입 공세에 대비해 우리(조선) 민족의 경제적 자립성을 지키려는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된 민족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 ③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 황국 중앙 총상회가 설립된 것은 광무 2년이자 고종 35년인 1898년 7월의 일이다.
- ④ 한성 은행이 설립된 것은 고종 34년이자 광무 원년인 1897년 2월의 일이다. 또 대한 천일 은행이 설립된 것은 고종 36년이자 광무 3년인 1899년 1월의 일이다. 두 은행 모두 민족계 은행으로, 특히 대한 천일 은행은 설립 시부터 고종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 ⑤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것은 원산 총파업이다(1929.1.13~4.6).

39 - 일제 강점기 말에 볼 수 있는 모습

39.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국가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 ②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
- ③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
- ④ 형평사 창립 대회 개최를 취재하는 기자
- ⑤ 헌병 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정답> ②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제의 전시 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의 판결문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판결문에는 피고인 임○○이 이웃 주민과의 잡담에서, 자식이 징용되거나 근로 보국대에 가지 않도록 취직시킨다 등의 발언을 하여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에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말에 볼 수 있다. 몸빼(일본어: もんぺ)는 원래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바지로, 일제 강점기 말에 일제에 의해 일본과 조선의 부녀자들에게 강제로 보급된 험렁한 바지를 가리킨다('일바지' 또는 '왜바지'). 당시 일제는 국민복 착용과 함께 몸빼 착용을 강요하였다. 또 애국반은 일제 강점기 말 한국인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하여 실시된 조직이다. 1938년 7월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조직하고 각 연맹 산하에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결성하였다.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은 1940년 10월에 국민 총력 조선 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국가 보안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12월의 일이다(1948.12.1).
- ③ 경부선 철도가 완공된 것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 12월의 일이고(1904.12.27), 서울 남대문 정거장(지금의 서울역)에서 개통식을 거행한 것은 이듬해인 1905년 5월의 일이다(1905.5.25). 경부선 철도는 경인선 철도에 이른 두 번째의 철도 개통이었다(1899.9.18).
- ④ 형평사 창립 대회가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1924.4.24).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을 펼쳤다.
- ⑤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집행하도록 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년 3월 조선 태형령 폐지).

40 - 한미 이운재

40.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



- 생몰년: 1888~1943
- 호: 환산, 한미
- 주요 활동

김해 출신으로 합성 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영변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이후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하여 한글의 연구 및 보급에 앞장섰으며,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옥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①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였다.
- ②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뒤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 ③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④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 ⑤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론을 발표하였다.

정답> ①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이라는 제목 아래 '생몰년이 1888~1943년'이고, '호가 환산, 한미'이며 '김해 출신으로 합성 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919년 영변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이후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하여 한글의 연구 및 보급에 앞장섰으며,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옥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은 한미 이운재(1888~1943)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운재는 조선어 학회(1931년 11월 조선어 연구회에서 명칭 변경)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였다.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과 글[국어]의 연구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 학술 단체로 1933년 10월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고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어 1935년부터 표준어를 사정하여 이듬해인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②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뒤 서유견문을 집필한 인물은 구당 유길준(1856~1914)이다(1895, 고종 32).
- ③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은 한힌샘 주시경(1876~1914)이다(1907.7).
- ④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士民必知)를 한글로 저술한 인물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자 육영 공원에 교사로 초빙된 호머 헐버트(1863~1949)이다(1891, 고종 28).
- ⑤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론을 발표한 인물은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한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08.8~12). 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미완성 논설이다.

41 - 한국 광복군

41.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가) 편력 계획 대강의 일부로 병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가) 총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1. 연내에 동북 방면에서 중국 관내로 들어와 화북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독립군 중에서 모집한다.
3. 한국 국내와 동북 지방 각지에 있는 장정들에게 비밀리에 군령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응모하게 한다.
5. 포로로 잡힌 한인을 거두어 편성한다.



- ①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②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③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무장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 ④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정답> ①

'이것은 (가) 편력 계획 대강의 일부로 병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가) 총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시된 자료에는 '1. 연내에 동북 방면에서 중국 관내로 들어와 화북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독립군 중에서 모집한다. ... 3. 한국 국내와 동북 지방 각지에 있는 장정들에게 비밀리에 군령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응모하게 한다. ... 5. 포로로 잡힌 한인을 거두어 편성한다'는 내용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한국 광복군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4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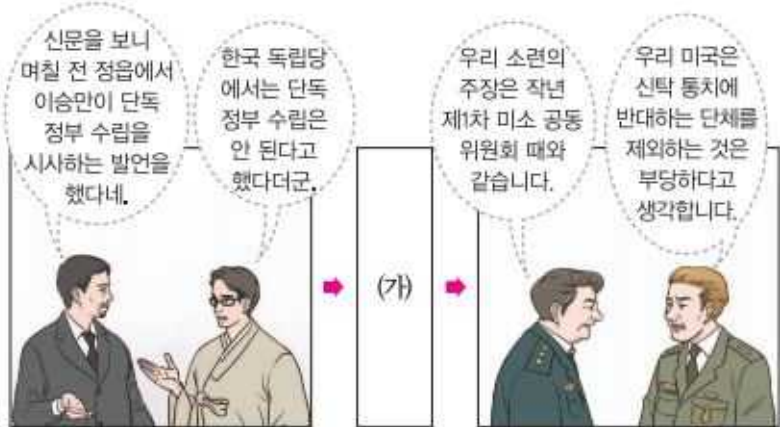
한국 광복군은 이후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1945년 초부터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수도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같은 해 3월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하지만 동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오답 해설>

- ②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부대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이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각 1932년 9월과 11월/1933년 7월). 쌍성보는 흑룡강성 하얼빈 서남방에 위치하며, 대전자령은 지린성 왕청현에 위치한다. 대전자령 전투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함께 우리나라 항일 무장 투쟁사 3대 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 ③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무장 조직으로 결성된 부대는 1938년 10월 중국 관내*인 후베이성 우한의 한커우[한구]**에서 조직된 조선 의용대이다(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1939.10.10).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은 1937년 12월에 결성된 좌파계의 항일 민족 연합 전선이다.
*관내(關內)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의 성도(省都)이다(중국어 명칭임). 그리고 우한(無漢)은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의 세 도시를 함께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1949년에 합쳐짐).
- ④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한 부대는 조선 혁명군(총사령 양세봉)이다(1932.3-7)(한중 연합 작전). 영릉가는 중국의 요령성 신빈현에 위치한 지명이다.
- ⑤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 독립 군단(총재 서일)이다(1920.12). 대한 독립 군단은 1921년 6월 러시아령 자유시[알렉세예브스크]에서 참변을 당한 후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자유시 참변, 1921.6.28).

42 - 좌우 합작 위원회 발족

42.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②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 ③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 ④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 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서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정답> ④

왼쪽 그림에 '신문을 보니 며칠 전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네'라는 말에 '한국 독립당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된다고 했다더군'이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우남 이승만(1875~1965)이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조직하자'는 '정읍 발언'을 한 것은 1946년 6월의 일이다(1946.6.3). 오른쪽 그림에 '우리 소련의 주장은 작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때와 같습니다'는 말에 '우리 미국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린 것은 1947년 5월의 일이다(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6.3.20-5.9/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7.5.21-10.18).

몽양 여운형(1886~1947)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1946년 7월의 일이다(1946.7.25)(~1947.10.6). 참고로 같은 해 10월 7일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19).
- ②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내한한 것은 1948년 1월의 일이다(1948.1.7). 하지만 소련 측이 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지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자,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접근 가능한 지역 만에서의 총선거'를 가결하였다(1948.2.26).
- ③ 고하 송진우(1887~1945), 인촌 김성수(1891~1955) 등이 한국 민주당을 창당한 것은 1945년 9월의 일이다(1945.9.16). 한국 민주당은 이들 민족주의 우파 계층의 지식인과 언론인, 자산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설립한 정당이었다. 약칭은 '한민당'이며,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한국 양당 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온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다.
- 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서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1945년 9월의 일이다(1945.9.6).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지부가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1945.11).

43 - 시기별 지방 통치 체제

43. (가)~(라)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빼서 청주(靑州)를 두니 처음으로 9주가 되었다. 대아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 (나)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와 75도 안무사를 두었으나, 얼마 후 안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와 8목을 두었다. 그 이후로 5도·양계를 정하니, 양광·경상·전라·교주·서해·동계·북계가 그것이다.
- (다) 각 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라고 칭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로 하고, 동북면을 '영길도'로 하였으니, 평양·안주·영흥·길주가 계수관이기 때문이다.
- (라) 전국을 23부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 부, 군, 현의 명칭과 부윤, 목사, 부사, 군수, 서윤, 판관, 현령, 현감의 관명을 다 없애고 읍의 명칭을 군이라고 하며 읍 장관의 관명을 군수라고 한다.

<보기>

- ㄱ. (가) - 신문왕 재위 시기에 정비되었다.
- ㄴ. (나) -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다.
- ㄷ. (다) -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을 감독하였다.
- ㄹ. (라) -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가)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빼서 청주(靑州)를 두니 처음으로 9주가 되었다. 대아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9주*(5소경)가 설치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5년인 685년의 일이다. (나)에서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와 75도 안무사를 두었으나, 얼마 후 안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와 8목을 두었다. 그 이후로 5도·양계를 정하니, 양광·경상·전라·교주·서해·동계·북계가 그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지방 통치 체제인 5도 양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종이 양계(동계·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한 적이 있으며(983, 고려 성종 2), 5도의 명칭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예종 대(재위 1105-1122, 제16대)이다. (다)에는 '각 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라고 칭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라 하고, 동북면을 '영길도'로 하였으니, 평양·안주·영흥·길수가 계수관**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이 전국을 8도로 나눈 것은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의 일이다. (라)에는 '전국을 23부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 부, 군, 현의 명칭과 부윤, 목사, 부사, 군수, 서윤, 판관, 현령, 현감의 관명을 다 없애고 읍의 명칭을 군이라고 하며 읍 장관의 관명을 군수라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처럼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337군)로 개편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12-1895.8). 정확하게는 1895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후 이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반발이 강해져 이듬해인 1896년 8월에 13도제로 다시 바뀌었다(1896.8.4). 즉 기존의 8도제에서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 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었다. *9주의 명칭이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한자식으로 개칭된 것은 경덕왕 때(재위 742-765, 제35대)의 일이다.

**계수관(界首官): 고려 말기 및 조선 초에 도제(道制) 및 군현제가 아직 확립되기 전의 상급 지방 행정 기구의 구실을 한 제도이다. 고려에서는 주현 중에서 중심이 되는 대읍(大邑)의 수령을 계수관이라고 하였으며, 여러 속현을 관장하면서 지방 행정의 실제적인 중심 단위로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와 연결되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도와 군현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 역할하였다(조선 세조 이후 소멸).

<30번 아래 나머지 해설>

44 - 1·4 후퇴 이후의 사실

44.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에서 퇴각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을 이용해 철수하였고, 오후 1시경에 마지막 부대가 통과한 후 임시 교량을 폭파시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 시민들에게 피란을 지시하였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란길에 나섰다.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하였다.
- ③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하였다.
-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 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답> ①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에서 퇴각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들은 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을 이용해 철수하였고, 오후 1시경에 마지막 부대가 통과한 후 임시 교량을 폭파시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 시민들에게 피란을 지시하였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란길에 나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에서 퇴각하고 정부가 서울 시민들에게 피란을 지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주어진 자료는 1951년의 '1·4 후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51.1.4).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다(1953.10.1).

오답 해설>

②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한 것은 1950년 11월 하순경의 일이다.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 해병 사단(1만 3천여 명)이 서부 전선 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장진호(함경남도 장진군의 호수로, 개마고원의 저수지)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리하여 장진호 계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철수하는 약 2주간에 걸친 작전을 전개하였다(1950.11.27-12.11).

③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한 것은 1949년 6월 6일의 일이다(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1949.6.6), 국회 프락치 사건(1949년 4월 말~8월 중순) 등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결국 1949년 7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8월로 앞당겨지게 되었고, 동년 9월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 조사 위원회,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가 해체되었다.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 12일의 일이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1893~1971)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태평양] 방위선이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밝혔다.

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 10일의 일이다.

45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5.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③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④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답> ①

'경기도 광주 대단지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탈취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서울시가 도심 정비를 명목으로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약속한 이주 조건을 지키지 않자 주민들이 대지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반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박정희 정부의 도시 정책에 반발해 광주 대단지 이주민들이 시위를 한 것은 1971년 8월의 일이다(1971.8.10). 당시 경기도 광주 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이주민 수만여 명(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 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7월의 일이다(1970.7.7, 착공한 것은 1968년 2월 1일).

오답 해설>

②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1996.12.12)(김영삼 정부 시기, 1993.2-1998.2).

③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일이다.

④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6~1988).

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1월의 일이다(1998.1.15).

<48번 오답 해설>

④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2007.10.4). 제2차 남북 정상 선언으로, 약칭 '2007 남북 정상 선언문'이다.

⑤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46 -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46. (가), (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 -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 ② (가) -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 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 ③ (나)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 ④ (나) -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 ⑤ (가), (나) - 대통령이 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③

'사진으로 보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가)에 '대학 교수들이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섬'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행진을 벌인 것은 1960년 4월 25일의 일이다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시국 선언문 발표). 이를 통해 (가)는 1960년의 '4·19 혁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어 (나)에는 '명동 성당에서 시민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6월 민주 항쟁 결과 당시 노태우 여당(민주정의당) 대표(차기 대선 후보)에 의한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같은 해 10월 여야 합의에 따른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이루어졌다(1987년 10월 29일 공포).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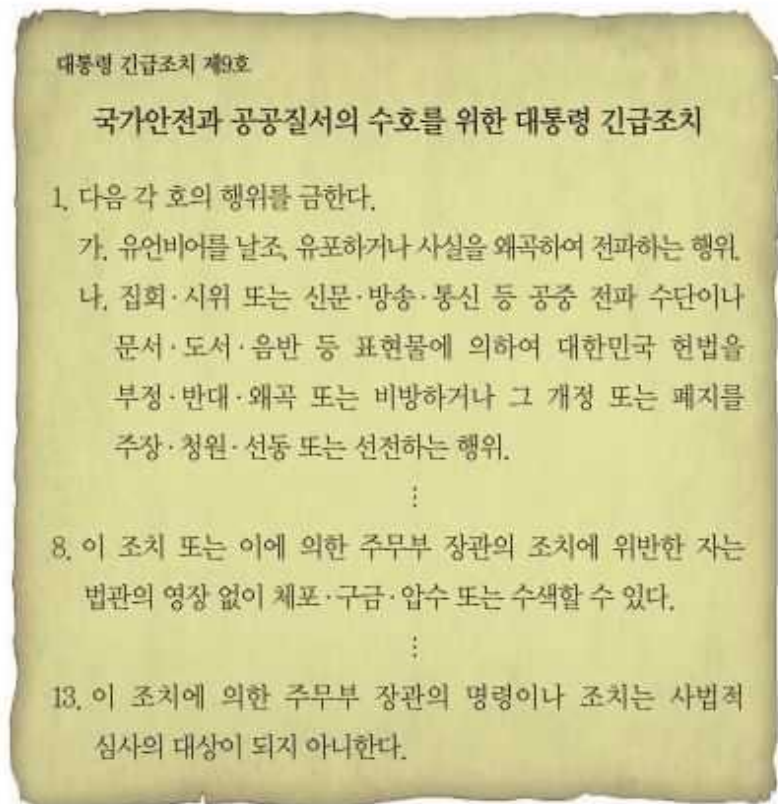
- 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민주화 운동은 1964년에 일어난 '6·3 시위'이다.
- ②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 한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 항쟁이다.
- ④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의 5·18 민주화 운동이다.
- ⑤ 대통령이 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에 하야를 표명하고 다음 날인 27일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경무대를 떠났다.

<47번 오답 해설>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3~1948.3.22).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8년 1월의 일이다(1958.1.13).

47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47.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민 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 ②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 ⑤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제목 아래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덧붙여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와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긴급 조치 9호가 발동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5년 5월의 일이다(1975.5.13).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1976.3.1).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야당) 인사들이 발표한 선언으로,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 ① 국민 방위군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50년 12월 16일이고, 12월 21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만 17세에서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으로 조직되었는데 이후 1951년 1월 1·4 후퇴 이후 국민 방위군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된 것은 1951년 1월 15일(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같은 해 4월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의 해체가 결의되었다(1951.4.30). *국민 방위군 사건: 6·25 전쟁 1·4 후퇴 당시 국민 방위군의 일부 고급 장교들의 부정부패에 의해 약 9만 명의 장정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한 사건이다.
- ②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허정 과도 정부* 때 이루어진 제3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0.6.15). *허정 과도 정부: 제1공화국 붕괴 직후인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존속한 과도 정부이다(제3차 개헌 이룸). 같은 해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제2공화국(장면 정부)이 탄생하였다(1960.8.12~1961.5.16).

48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48.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남북이 열과 성을 모아, 이번의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새 출발에 온 세계가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 정상 회담을 이뤄냈듯이 남과 북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통일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 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 ②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6·23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④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하였다.
- ⑤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답> ①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남북이 열과 성을 모아, 이번의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새 출발에 온 세계가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 정상 회담을 이뤄냈듯이 남과 북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통일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1924~2009, 제15대)이 2000년 6월, 3일 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6·15 남북 공동 선언'까지 한 후 평양을 출발하면서 발표한 성명('북녘 동포들이 보내 준 성원과 환대에 감사'이다(2000.6.15).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남북이)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8월의 일이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같은 해인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2000.8.29),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2003.6.30).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04년 12월에 이르러 시범단지 분양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이루어졌다.

오답 해설>

- ②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6·23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3년 6월의 일이다(1973.6.23). 기존의 할슈타인 원칙에 따른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통일 정책을 탈피하고자 한 성명으로,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고,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총 7개항)(흔히 '6·23 선언'이라고 부름).
- ③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이른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가리킨다.

<45번 아래 나머지 오답 해설>

49 - 시대별 인물들의 외교 활동

49.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번호	제 목
1	1모듬 - 강수, (가)
2	2모듬 - 서희, (나)
3	3모듬 - 이에, (다)
4	4모듬 - 김홍집, (라)
5	5모듬 - 김규식, (마)

- ① (가) -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짓다
- ② (나) -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다
- ③ (다) - 일본에 파견되어 계해약조 체결에 기여하다
- ④ (라) - 보빙사의 전권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되다
- ⑤ (마) -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다

정답> ④

'모듬별 주제 탐구 과제 안내'라는 제목 아래 '인물로 보는 역사 속 외교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모듬-강수', '2모듬-서희', '3모듬-이에', '4모듬-김홍집', '5모듬-김규식'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보빙사*의 전권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된 인물은 민영익(1860~1914)이다. 명성 황후의 친정 조카이기도 하다. 도원 김홍집(1842~1896)은 1880년(고종 17)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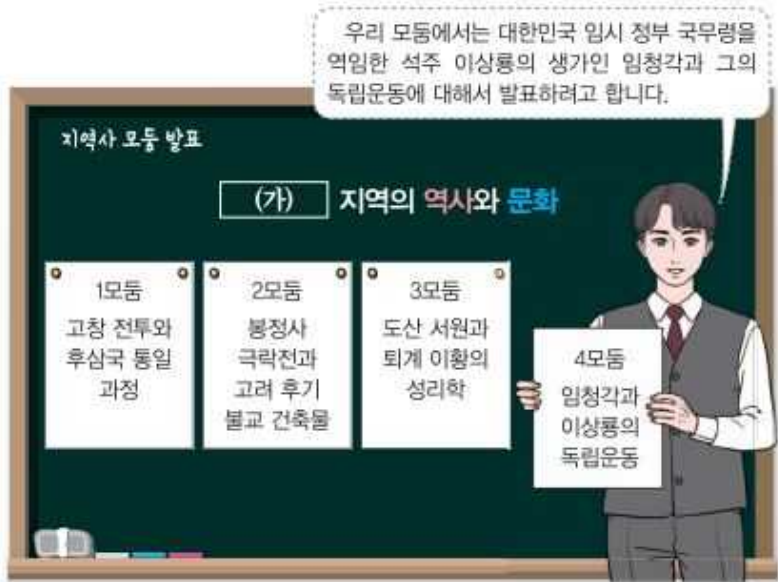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것이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 등을 작성한 인물은 강수(?~692)이다.
-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629~694)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글
- ②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한 인물은 고려의 문신 서희(942~998)이다(993, 고려 성종 12). 거란의 제1차 침입 시 거란의 적장 소손녕(?~996)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강동 6주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③ 일본에 파견되어 계해약조 체결에 기여한 인물은 이에(1373~1445)이다. 수십 차례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데 특히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세견선의 입항 규모를 정한 계해약조* 체결에 기여하였다.
- *계해약조: 1443년(세종 25)에 조선이 대마도주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삼(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 ⑤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인물은 우사 김규식(1881~1950)이다(1919.5). 처음에는 신한 청년단(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었으나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성립됨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표로도 위촉되었다.

50 - 경북 안동의 역사적 사실

50.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파악한다.
- ② 강주룡이 고공 시위를 전개한 장소를 알아본다.
- ③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피란한 지역을 찾아본다.
- ④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위치를 검색한다.
- ⑤ 김사미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곳을 조사한다.

정답> ③

'(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제목 아래 말풍선에 '우리 모둠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인 임청각과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외 1모둠에는 '고창 전투와 후삼국 통일 과정', 2모둠에는 '봉정사 극락전과 고려 후기 불교 건축물', 3모둠에는 '도산 서원과 퇴계 이황의 성리학'이 차례로 나와 있다. 석주 이상룡(1858~1932)의 생가인 임청각(臨淸閣)이 위치한 곳은 경북 안동시 법흥동이다(보물 제182호). 따라서 주어진 자료 속 '(가) 지역'은 경북 안동이다. 참고로 고려 왕건이 고창(지금의 안동)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930년 1월의 일이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2차) 때 피란한 지역이 '복주', 즉 지금의 경북 안동 지역이다. 홍건적이 침입한 것은 두 차례로 고려 공민왕 8년인 1359년 12월과 10년인 1361년 10월에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김현창(?~822)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는 웅천주로 지금의 충남 공주 지역이다(822, 신라 헌덕왕 14). 김현창이 당시 웅천주 도독이었다. 참고로 김현창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자 김주원(?~?)의 아들이었다.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으로 정했지만 곧 진압되었다.
- ② 노동 운동가 강주룡(1901~1931)이 고공 시위를 전개한 장소는 평양의 을밀대(평양의 고구려 시대 누정) 지붕에서이다.
- ④ 신립(1546~1592)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위치는 탄금대(충북 충주 위치)이다(1592.4, 선조 25).
- ⑤ 김사미(?~1194)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곳은 경상도, 즉 지금의 경북 청도 지역이다(1193, 고려 명종 23). 참고로 이때 초전(지금의 울산)에서도 효심(?~?)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를 합쳐 김사미·효심의 난이라고 한다.

- 이 상 -